

한 국 어 판

Vol. 39

天一國 11年
天曆 9월
2023년 양력 10월

True Peace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HJ NEWS

현장소식

하늘섭리의 승리를 향한 세계선교 등불의 현장
천성경 제12편 제4장 3절 천일국 시대 우리의 책임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유럽중동청년 특별집회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아프리카)
피스로드 2023: 종교의 자유 포럼



하늘섭리의 승리를 향한 세계선교 등불의 현장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주는 밝고 강렬한 빛깔의 잎들과 부드러운 바람이 하늘부모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23년을 3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 식구님들 모두 올 한해 소망하셨던 알곡을 거두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기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이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명을 받음과 동시에 “빨리 전 세계를 순회하라”고 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 신유럽대륙을 시작으로 신남미, 신중미, 신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신아프리카 대륙까지 5개 대륙을 순회하였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이렇게 세계순회를 서두르신 까닭은 하늘섭리를 놓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절박함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어머님께서서는 어서 속히 전 세계가 실질적 교회성장을 통해 국가복귀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제가 세계순회를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로 소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모든 문제는 세계본부와 현장, 지도자들과 식구, 1세와 2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해결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미래인재 발굴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가능한 제게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비전 2025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천원궁 봉헌식을 기점으로 새 조직과 신 체제로 새 출발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2025 천원궁 입궁식까지 신령과 진리로 하나되어, 초창기 불타는 심정으로 전도를 통한 실질적 교회성장과 신통일한국의 승전보를 울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순회를 하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참부모님의 명을 받고 일평생을 투입하며 현장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묵묵히 기반을 닦아 나온 해외선교사들의 삶은 제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신유럽에서는 선교 초창기 강도 침입으로 자식을 잃었지만 묵묵히 참부모님의 말씀만을 위해 정성 드리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박해로 몇 번이나 강제 추방 당했지만 다시 입국하여 뜻을 전달하고 있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한없이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임지에서 뼈를 묻으라”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직하게 뜻 길에 투입하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신남미에서는 선교사들과 현장 식구들에 의해 참부모님과 깊은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자르딘 수련소가 새 단장되는 모습을 보았고,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일본 국가메시아를 중심으로 불모지인 레다에 수련소를 만들어 미래인재 발굴을 향한 희망을 싹 틔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신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나아가 각 대륙에서는 비전 2025 승리를 향해 지자체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은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복귀 승리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신아프리카에서는 참어머님께서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는 선학 UPA 졸업생들이 하나된 가운데 ‘효정랑’이라는 이름의 자체 아프리카 사관학교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가복귀 1호 상투메 프린시페에서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과의 접견을 통해 청년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투메 대통령은 “진심으로 이 나라는 참어머님의 나라다”라는 고백을 하며 참어머님께 감사 인사와 그리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는 지도자와 식구들이 하나되어 참어머님께 약속드렸던 비전2025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식구 여러분! 우리는 현재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실체 모심의 시대요, 본질을 추구하는 시대이며, 효정을 넘어 충절의 삶을 사는 시대요, 실질적 전도실적을 보고하는 시대입니다.

세계본부는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진정한 소통과 공유, 투명한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의 화살은 쉽게 꺾이지만, 단단하게 묶여진 화살 다발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훌륭한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되어 단단히 모여야 비전을 향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되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꿈을 위해 간절히 기도 드리고 정성드리면 하늘은 우리의 꿈과 소원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일국의 효자 효녀, 충신이 되어 기쁨과 승리의 실적을 올려드리며 비전 2025를 향해 총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하늘섬리의 승리를 향한
세계선교 등불의 현장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특집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 10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
16 전 세계가 경축한 대향연
21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활동 보고



참부모님 말씀

- 04 세계의 평화
천성경 제10편 제2장 4절
06 천일국 시대 우리의 책임
천성경 제12편 제4장 3절

참부모님 동성

- 08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유럽중동청년 특별집회

HJ NEWS

- 26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아프리카)
31 신유럽중동 청년 21일 효정 특별 수련
34 천주평화연합 창립 18주년 기념식
35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 이취임식

현장소식

- 37 피스로드 2023: 종교의 자유 포럼

효정증거

- 39 당신이 이끄는 곳으로 따르리라
안로스 아담스





세계의 평화

천성경 제10편 평화사상 제2장 4절

통일교회의 중심사상은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는 과정이 없으면 가정의 평화가 없는 것이요, 가정의 평화를 형성하지 못하면 민족평화·국가평화·세계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랑권을 중심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평화의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통일교회의 사상은 구원의 목표를 개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구원이 되어 태평왕국이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은 태평한 백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가 평

화의 세계가 되면 그 세계권 내에 속해 있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도 평화로운 국가권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충권이 있어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조국의 광복을 세계화시키고 그 세계화된 권 내에서 보편적인 생활 문화를 창건할 수 있는 내용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갖는 것이 현재 난국에 봉착한 세계정세를 새로운 국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통일사상입니다.

본래 사람은 마음을 중심삼고 몸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통괄하고 주관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과 몸은 그러한 상대

적 기준입니다. 그런 상대적 기준을 아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적인 것을 중심삼고 몸적인 것을 흡수하여 그에 동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이 시대의 세계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적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세계가 하나되는 것이 아니요, 경제적 생활제도가 같다고 해서 세계가 하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방향이 하나되어야만 세계는 하나됩니다. 국가 간의 싸움이나 결렬 같은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정책 방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세계는 부딪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다른 그 생각들을 통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인간 끼리끼리의 생활로써 통합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신을 중심삼고 통합할 수 있겠느냐? 길은 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체로서는 이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끼리의 욕망으로 세워진 정책 이념 가지고는 하나의 정책 방향, 하나의 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사상, 절대적인 정신과 인연된 하나의 사상체계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과 몸을 통한 생활무대를 재현시키는 길을 발굴하지 않고는 하나의 세계를 모색할 수 없으며,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희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통일교회보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합니다. 나라, 민족에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위한다면, 지금까지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은 애국정신이 여기에서 현현하게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새로운 전통이 여기에 세워지게 될 때, 그 전통을 세운 단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심어 놓게 되면 만민은 그 사랑의 길을 너도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좋아했을 것이고 현재도 좋아하고 미래에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시간성 관념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표준하고 종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체요 기원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인류에게 필요합니다. ㄹ





천일국 시대 우리의 책임

천성경 제12편 천일국 제4장 3절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 속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선한 혈통의 뿌리로 오신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참아버님은 이제 영계로 떠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평화이상왕국을 창건해야 할 섭리적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의 성화는 한평생을 함께해 온 우리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사랑의 본체 되시며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심

정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태초의 천지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운 천법에 따라 이 땅에서 인류역사 이래 그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섭리적 과제들을 완성·완결·완료하시고 영·육계를 주관하시기 위해 이제 영계로 삶을 옮기시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차원의 섭리를 열게 되시는 소망의 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말이나 글로써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만감 속에 오늘 우리는 섭리적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참아버님께서는 천법에 따라 영계를 거점으로 삼으시고 자유자재로 영계와 육계를 왕래하시며 천일국의 확장을 위해 섭리하실 것입니다. 참아버님과 나는 일심·일체·일화·일념의 경지에서 섭리를 경륜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절의 승리를 통해 본연의 에덴동산을 이 땅 위에 창건하는 데에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역사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간섭할 수 없는 탕감복귀의 섭리노정에서 참아버님과 내가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험난한 탕

감복귀의 노정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승리적 터전 위에 참아버님과 나는 하늘이 주신 섭리적 차원의 동등권·동거권·동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섭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이 땅을 중심한 섭리를 주도하며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당부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참부모님이 세워 주신 전통을 절대 생명시켜야 하며 후손 만대에까지 상속하고 전승시켜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사랑과 심정의 전통, 말씀과 규정·규례의 전통, 심정문화의 전통을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참부모님의 탕감복귀섭리 노정의 결정체인 말씀을 훈독하는 훈독회의 전통은 각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 그리고 하늘을 중심한 모임에서 가장 중심적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질서와 전통도 참부모님을 중심한 참가정과 아벨을 중심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통일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부모님의 전통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가정의 이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요람이며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실현하는 터전입니다. 가정맹세의 8절을 중심으로 나아가며 선한 핏줄의 전통을 절대신앙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 비전은 ‘순결한 사랑,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부부가 절대사랑으로 하늘을 모시고 일체가 되는 전통 속에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훈독회를 통해 천일국의 질서가 튼튼히 자리 잡게 해야 하고, 정오정착의 기준으로 종적 횡적으로 심정적 전통이 자리 잡는 축복의 이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모두는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참부모가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탕감복귀섭리의 승리적 기대가 아니고서는 타락 인간을 종족의 메시아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님의 한평생 섭리적 경륜 속에는 항상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천일국의 천주적 완성은, 종족적 메시아들이 그 책임을 다해서 각 종족에게 말씀과 축복과 위하는 삶을 상속하여 선한 주권을 세워 평화로운 세상, 인류 대가족 이상의 실현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하늘의 선택과 조상의 공적 그리고 자신의 후천적 천품에 의해 뜻길과 인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참부모님의 뒤를 따라 오늘의 승리권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한 부모를 중심한 한 가족 심장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아직까지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지만 우리 통일가는 인종 국경 및 어떠한 장벽도 거뜬히 뛰어넘어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위하여 주는 삶의 본을 보인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특별히 이런 섭리의 대전환기에는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참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아버님은 지금 영계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다만 무형으로 계시 뿐이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참아버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중단 없는 전진을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누리에 참부모님을 중심한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심정문화가 정착되어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기원절의 승리를 토대로 더욱 일로매진하여 하늘과 참부모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고 세상과 역사 앞에 큰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유럽중동청년 특별집회

참부모님의 참사랑 속에서 신유럽중동청년 특별집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7일(양 9.1) 천정궁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인류역사 이래 남녀노소를 막론해 가장 사랑받고 감사하고 귀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는 ‘엄마’입니다, 엄마. 인류역사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엄마라는 존재가 묻혀 있었습니다.

창조원칙을 보면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시어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도중에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인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은 본연의 인류를 찾기 위한 탕감복귀 구원섭리역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와 자녀들과 더불어 지상천국 생활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영원한 세계에 함께 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꿈이며 소원입니다.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길은 부모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입니다. 거기에서 찾아야 될 것은 엄마, 왕엄마입니다. 왕엄마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입니다. 왕엄마는 유일합니다. 2대, 3대, 4대로 이어 내려갈수록 그들에게 나는 왕엄마가 됩니다. 여기 있는 문신출, 문신흥, UPA 생도들에게도 나는 왕엄마입니다.

그리하여 엄마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하나되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ㄸ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지난 10년간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께 효정의 도리를 올리시며 내적인 정성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기 이후부터는 전 세계 가정연합 식구들이 하나된 가운데 인류 전체를 대표한 입장에서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을 더욱더 지극히 모시는 효자, 효녀, 충신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한 의미에서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은 전 세계 대륙과 섬리 현장에서 큰 축제 형태로 마련됐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의 1부 천심원 특별정성을 통해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의 정성을 온전히 봉헌해 올리고, 2부 천일국 경배 기념식(양 8.31, 오후 10시)을 통해 천지인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비전 2025 승리를 향한 새 출발을 결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7일(양 9.1) 0시 참가정과 국내외 주요 인사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HJ 천주천보 수련원 대성전에서 거행됐다.

경배 기념식은 세계평화를 위해 일평생 살아오신 참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남북통일을 결의하는 새출발의 장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의 사회로, 성화식 기념영상 상영, 성초점화(문효진 가정·문흥진 가정),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보고기도, 천일국 경배식, 말씀훈독, 추모시, 회고담, 추모찬양, 기념사, 새 출발 결의 합심기도, 역만세 삼창,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송광석 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참아버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부모님의 해방과 인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남겨두고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그런 참아버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인류 구원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아버님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결의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전진하셨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부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도 이를 이겨내시고 천일국 안착 선포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천일성전 봉헌을 이루어 내셨습니다.”며 “오늘 우리는 양위분의 심정을 떠올리며, 하늘부모님의 조국을 찾으시고자 전진하시는 참부모님의 애달픈 심정을 위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고 전했다.

이기성 HJ천주천보수련원 천심원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승리하신 천지인참아버님! 참아버님께서는 재림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예비하신 독생녀 참어머님을 기적같이 만나 어린양 혼인잔치를 승리하셨사옵나이다. 그 결과 마침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셨습니다. 몸소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시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세상을 적시면서 천주적인 복귀의 실적을 세우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천상에 오르신 후, 참아버님께서는 영계에서, 참어머님께서는 지상에서 섭





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심·일체·일념으로 역사해 나오셨사옵니다. 참어머님께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시며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모든 섭리를 승리로 이끄시며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새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참아버님! 독생녀 실체성령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비전 2025 승리를 향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출발 하겠사오니 기필코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날 정원주 총재비서실 제2 비서실장은 ‘하늘부모님에 대한 당신의 효정의 삶이 온누리에 희망의 빛이 되소서’의 제목의 참어머님 서신을 훈독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는 아버지! 이 천주에 당신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복귀섭리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본향원에 잠드신 참아버님.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수없이 본향원을 오르내리며 아버님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었고, 제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약속했던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 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뤄 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님 아시지요.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어,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치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만 했습니다.

“2020년까지 7개국을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모든 축복가정을 신종족메시아로서 천보원에 입적하게 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아버님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이 선물, 하늘부모님에 대한 당신의 효정의 삶이 온누리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어 이성만 HJ동산 추진위원장은 ‘이제는 하늘부모님의 조국광복’이란 제목의 추모시를 통해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님은 일편단심 남북통일을 맹세하시며
 “조국이여 밝아오라”
 하나님 조국광복의 밀사, 선봉장이 되셨나이다.
 님은 목숨 담보하여 통일의 꽃 피우시려
 동토의 심장부 만수대 의사당에서
 하나님주의 두익사상 사자후 토하시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김일성 주석 열썬안아 남북통일의 큰 물꼬 트시고
 8천만 겨레의 가슴에 통일 이정표 세우셨나이다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성채 이끄시고 봉두난발, 온 세상 누리셨나니
 “총칼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가 되었다”
 신통일나국 향한 진군의 큰 북 올리셨나이다
 하늘부모님 조국광복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환희의 동산 이루오리다
 하늘이시여, 이 한 때 함께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눈동자가 되어주소서



이후 양창식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참아버님을 향한 저희들의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오대양 육대주에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참아버님을 모시고 따라왔고, 4대 성현 누구도 제세 시에 국경을 넘지 못했는데, 참아버님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선교하신 분이었습니다.”며 “참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밝혀 주셨던 진리와 참사랑의 불빛은 잠시 우리를 깨우쳐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저희들의 삶에 등대가 되어 24시간 365일 내내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역사적 사실로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저희 삶의 한 중심에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현재로 살아계십니다.”고 전했다. 이어 양창식 세계의장은 “참아버님의 다 이루었다의 기도는 참어머님께서 실체 천일국을 다 이루시고서야 비로소 양위분의 ‘다 이루었다’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일어서야 할 차례입니다. 참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참아버님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어머님을 잘 모시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고 참아버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척에서 모셨던 회고담을 전했다.

이날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아버님을 천상세계로 보내야 했던 그날이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종교의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중동 평화 운동을 위해 테러가 난무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종교 대화합의 길에 일생을 헌신하시며 인류를 평화와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소련 고르바초프를 만나 공산주의 종언을 당당하게 외쳐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 목숨을 담보로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는 남북한을 통일할 수 없다며 하나님주의를 거침없이 외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가 참아버님 심정을 상속받고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며, 독생녀 참어머님의 수고와 정성의 터 위에 마침내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안착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며 “새로이 시작되는 위대한 도전을 위해 오늘 11주년을 맞이하신 참아버님 천주성화 기념식장에서 재출발의 의미로 신한국과 전 세계 모든 대륙과 국가가, ‘비전 2025 국가복귀 필승!’ 을 굳게 결의합니다!”며 기념사를 갈음했다.

이날 행사는 전 세계 대륙이 참어머님의 뜻을 받아 신통일한국·신통일세계를 향한 비전 2025를 위해 전진할 것을 결의한 후,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의 역만세 삼창을 끝으로 성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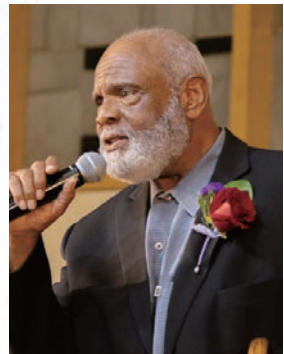
전 세계가 경축한 대향연



문선명 참아버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남북통일을 결의하는 새출발의 장으로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경배기념식’이 194개국에서 쌍방향 온라인 생중계로 국제적 참석자들을 위해 5개 언어로 통역해 진행됐다.

미국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9일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본부가 정성스레 준비한 경배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헌화, 찬양, 회고담 및 간증, 효정문 화공연 순으로 거행됐다.





특별히 워싱턴DC 성화 11주년 기념식은 축복가정을 비롯하여 평화대사 및 성직자 220명이 현장 참석하고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50여 명의 축복가정이 한국시간에 맞춰 기도와 정성을 함께 모두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뉴저지에서는 축복가정 4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화 11주년 기념식과 조찬을 진행했다. 또한 텍사스에서는 축복가정, 평화대사 및 성직자, 천주평화연합 지도자 등 135명이 모인 가운데 참아버님 성화 11주년을 기념하며, 천심원 워크숍 및 기념 예배를 개최했다. 기념식을 통해 김기훈 천의원장과, 데미안 던클리 미국 회장은 참아버님의 미국 섭리에 대한 짧은 메시지를 전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같은 시간 워싱턴 주에서는 래리 목사와 아케미 크리스넵 목사가 참아버님에 대한 회고담을 전하며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 전체 일정은 회고담, 경배기념식, 찬양, 화동 시간, 조찬으로 마련되었다.

하와이에서는 지역 장로 6명의 간증으로 성화 11주년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했으며, 벨베티아에서는 축복가정 및 지역VIP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예배 및 2세 식구의 효정 간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성화기념식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은 맨해튼,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노퍽, 코네티컷, 우스터를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서 정성을 모으고 비전 2025승리를 위한 결의를 올리는 시간으로 정성스럽게 장식됐다.



북유럽(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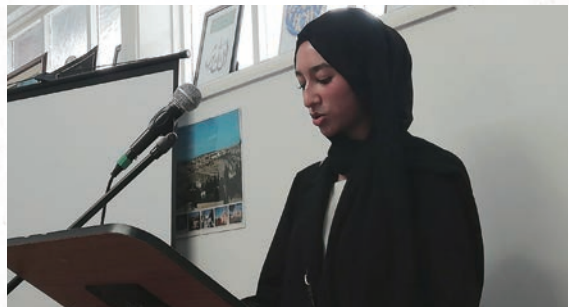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 행사가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8일(양 9. 2~3) 축복가정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리빙스턴 하우스 및 런던 전역과 일부 지역에서 거행됐다.

이날 리빙스턴 하우스에서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을 기념하여 1부 기념식 및 예배, 2부 심정체술 및 오찬으로 진행했다. 특별히 1부 기념식에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청소년 순례 프로그램에 참석한 후미코 부인과 매튜 부인의 효정 증언과 더불어, 추모 공연(밴드), 추모 찬양, 뮤지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참부모님께서 머무셨던 방을 식구들이 방문하며, 참아버님의 심정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됐다. 또한 웨일즈, 서부 컨트리, 서브 미들랜드 전역에서도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이 경배, 기도, 회고담, 축하 예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버밍엄에서는 천주평화연합(UPF), 세계평화여성연합(WFWP) 주관 기념 예배가 함께 진행됐다. 데이비드 박사는 참아버님의 사명과 주요 업적에 대해 설명하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알고, 일심일체일념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참아버님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UPF와 WFWP 창립을 통한 창립자 양위분을 중심한 활동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스콜틀랜드 천심원 기도실에서도 참아버님을 위한 성화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화기념 예배와 헌화를 통해 참아버님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원로 가정(엘리자베스와 사이먼)의 보고기도, 추모 찬양(엄마야 누나야)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한 전체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 행사를 통해 더욱더 참아버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어머님을 모시고 비전 2025를 향해 앞만 보고 끝까지 전진하자는 힘찬 결의를 다졌다.



동유럽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을 맞아 동유럽에서 엄숙한 추모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뜻 깊은 행사를 위해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6일(양 8.31) 동유럽 축복가정은 서약식과 천력 7월 17일(양 9.1) 특별 철야 정성을 진행했다. 그러한 정성의 기반 위에 7월 18일(양 9.2) 성대한 성화기념식을 거행됐다.

전체 일정은 한국 시간에 맞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부모님과 깊은 심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전 세계 축복가정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화합을 도모하는 의식으로 거행됐다.



중남미(도미니카)

세계본부와 하나 되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교회에서는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화11주년 기념식을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7일(양 9.1) 산토도밍고 본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베르난도 크루즈 국가지도자의 사회로 개회사, 촛불점화에 이어 대표자 경배(레오니다스 벨리어드 목사), 말씀 및 보고 기도(베르난도 크루즈 국가지도자), 영상시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프리카(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도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이 수도 킌사사 국립센터에서 가정연합 식구들이 4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렸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는 iPeaceTV를 통해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3,750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정원주 제2비서실 비서실장의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께 보내는 서신> 훈독을 통해 참아버님에 대한 참어머님의 깊은 사랑과 정성, 그리움을 깨닫게 되었으며,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의 섭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전진하시겠다는 간절한 심정과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 뿐 아니라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기념사와 양창식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의 회고담, 이성만 HJ동산 추진위원장의 추모시는 모두의 심금을 울리며 참어머님을 모시고 전도 배가 승리를 해야 한다는 데 힘을 북돋아 줬다.

세계본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성화11주년 기념 행사의 2부는 특별한 모임으로 마련됐다. 콩고 중부 지방 “르 데를리카테”에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강의와 문화공연, 특별 강연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참부모님 메시지를 중심으로 ‘창조원리’, ‘참사랑의 삶’, ‘하늘부모님의 뜻’, ‘이 시대의 인간의 역할’에 대해 더욱 강조하며, 신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선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다짐했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활동 보고



유럽

벨라루스, 리디아 이바니소바

참아버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를 완독한 저는 '인류는 한 가족, 한 형제'라는 대명제 아래 동서 제국을 연결하는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활동으로 저는 참부모님 섭리 완성을 위한 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베링해협 폭인 총 85km를 달리며 참부모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되던 그날, 저는 85km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인참부모님만을 생각하며 뜻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성드리며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스페인, 엑토르 마키아스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활동을 드리던 중, (양)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에 걸쳐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지역축제가 30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종교와 종교간의 대화와 문화교류 축진의 장이 마련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날 저는 참부모님께서 주창하시는 종교간의 화합과 참가정의 가치에 대해 간단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0일 정성기간 중 21일째가 되던 날 인권과 자유에 관한 소규모 독서모임까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사회 활동 및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정성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루이스·콘치타 아비디아 가정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활동을 위해 저는 20년 동안 가톨릭 수녀로 시무하셨던 이웃 할머니를 방문하여 통일원리를 교육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정성의 일환으로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참부모님께 다과상을 올리며, 페이스북을 통해 참부모님의 생애에 대한 작은 글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와 제 남편과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천심원 기도회에 참석하며 저희 부부에게 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큰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공원을 산책하는데 아주 상쾌한 바람, 즐거운 새소리, 공원을 즐겁게 뛰놀던 어린아이의 인사하는 모습에서 신실한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서는 특별한 곳이 아닌 늘 일상을 통해 저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구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이 정성이 특별기간을 넘어 더 오래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스페인, 메르세데스 토미타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2023 특별 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은 (양)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저는 무작정 왓츠앱과 페이스북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참사랑을 통한 축복의 가치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2일째 되는 날, 기도와 경배 정성 이후 저는 통일원리를 중심으로 길거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집집마다 설치된 편지함에 참부모님 메시지 소책자를 무작정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도 다음날도 꾸준히 저와 제 남편은 기도와 경배 정성 이후, 전단지 돌리며 하늘이 저희 부부를 통해 하늘부모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지기를 희망하며, 동네는 물론,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참부모님과 하루빨리 연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통해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참부모님 자서전 보급에 이어 성주식까지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아버님 성화 1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정성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신 참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자키 유엔 안 가정(6000쌍)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3~4번 전도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무작정 연락 하고, 방문한 결과 두 명을 새 식구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추후 조상 해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러한 결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아버님 성화11주기 이후에도 참어머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꾸준히 전도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참어머님! 저희의 사랑도 참어머님께 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항상 참어머님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프랑스, 샤를 뒤소투아르

(양) 7월부터 8월까지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을 통해 매일 아침 저녁 기도회와 더불어 50배 경배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 프랑스에 선한 영적 기반 마련을 위해 프랑스 가톨릭 신부(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준) 및 프랑스 루이 샤를 왕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군인들을 한 명 한 명 방계 해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이었을까요. 40일 정성의 일환으로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을 만났을 때, 두 명의 여동생과 그들의 남편이 성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만난 조카에게 가정연합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참어머님 자서전까지 보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계에 계신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 지상에서 섭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참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미리암 트라세즈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중 (양)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저는 당시 참전 용사였던 제 아버지와 또 다른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정성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공원요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 안내원인 다니엘이 제게 다가왔고, 그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친구 에디를 제게 소개해 줌은 물론 동시에 당시 참전용사였던 자신의 아버지(전 카톨릭 대학 역사학자)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분에게 저의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는 몹시 놀라며 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며 이야기 해줬습니다. 순간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과 제 조상이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상의 참어머님께서 얼마나 제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체코, 마르티네 마스너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저희 부부는 1세와 2세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14일(2주) 간의 통일원리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첫날은 모두에게 도전이 필요한 날이었지만, 이후 참가자 전체는 통일원리 및 참부모님의 생애업적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신들의 영적 성장에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러시아, 하야트 메티올키나

저는 2020년부터 온라인 채널(왓츠앱, 텔레그램)을 통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토론을 운영해 왔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서로 간에 많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후 참부모경, 천성경, 통일원리, 참부모님 자서전의 말씀 구절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섭리, 말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모임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수시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저의 말씀이 일상에 젖을 수 있도록 세계경전을 훈독하며, 말씀이 삶의 일부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시하고 참부모님을 모신다는 것, 전통을 지킨다는 것, 함께 믿고 의지하며 힘이 되어준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주신 참여머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로만 페트로프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저는 참부모님을 위해 경배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 제가 세운 조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길거리에서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노래를 통해, 대학가에서 통일원리를 전파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며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 인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여 현재까지도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티나아 에다키나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남편이 세 명의 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 식구들과 개인적 친밀함이 부족하여 첫 주 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늘부모님께서 저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게끔 훈련시킨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활동은 점차 안정되었으며, 천심원 철야기도를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위로와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일 기간 전도 활동 및 천심원 기도회가 토대가 되어 틈틈이 친척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과거와 달리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시즈코 바렛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저와 제 남편은 참부모님 자서전 보급을 위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평화 센터에서 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외부 인들과 최대한 많은 접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디오 강의 및 노트를 들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며 40일 기간 21명의 새로운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새 식구를 센터로 데려와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원리강의 교육을 이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식 이후 참여머님께서 천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저희 피스센터에 천심원이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와도 연결될 수 있게 노력중입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국, 데이비드·패트리샤 얼 가정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여성연합 회원들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이 마무리 되는 (양)9월 3일 합동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시크교, 힌두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했으며, 다들 참아버님의 엄청난 세계적인 업적에 대해 놀라움을 연신 표명했습니다. 이날 시의원과 고위 경찰간부, 영국 시크교 공동회장을 비롯한 몇몇의 VIP들은 자신들의 소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비전 2020 행사에 참석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연신 “큰 행사를 개최하며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하늘의 보살핌이다.”며 놀라운 히스토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종단대표(모하메드 이드리에스)로 2007년 7월에 한국대회에 방문한 적 있는데 아직도 그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부모님의 생애업적이 미래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길 희망했습니다.

영국, 러셀 고프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기간 중 새 신자 수련을 (양)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리버사우스 커뮤니티에서 개최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개최된 수련에는 6명의 새 신자를 포함한 11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수련회에 수료한 새 신자를 대상으로 2일 수련을 개최 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는 7일 수련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부부는 모든 내용을 맡고 행동할 수 있는 총책임자도 세우고 추후 센터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 에른스트·잉그리드 하우세데 가정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40일 특별 정성 기간, 저와 남편은 40일 경배 정성, 비엔나 천심원 기도회, 길거리 전도, 철야 기도회(zoom), 휴먼 식구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쇼핑몰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참부모님의 한평생 소망인 '세계평화'와 사랑을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참어머님의 최근 섭리를 소개하며 저희 부부는 개인적인 부활과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아프리카)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참부모님의 명에 따라 세계 5개 대륙을 순회한 가운데 그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9일부터 천력 7월 4일까지(양 8.5~15) 신아프리카 대륙을 순회했다.

순회 기간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참어머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신아프리카 지도자와 식구들에게 참어머님의 따뜻한 심정과 사랑을 비롯하여 염려와 걱정을 대신 전하며, 신아프리카 역시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효자·효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은혜로 가득 찬 식구집회

송용천 세계회장의 신아프리카 순회 일정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잠비아, 세네갈, 상투메 프린시페 등 총 5개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지도자 회의를 비롯하여 식구 집회 및 청년 집회, 천심원 기도회, VIP 접견, 고래섬 방문 등이 이어졌다.

신아프리카 대륙 DR콩고를 가장 먼저 방문한 송용천 세계회장은 지도자 총회를 통해 전략회의 시간을 마련해 핵심과제를 공론화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어 식구 특별집회가 신아프리카 대륙 전역 1,135명의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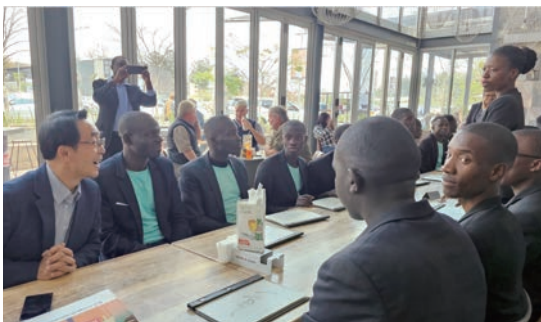
이후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에서도 식구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4개 국가의 식구 수는 적었지만 하늘부모님과 참여머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만은 대단했다. 신아프리카 지도자와 식구들은 참여머님을 대신하여 순회하고 있는 송용천 세계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환호와 박수는 물론 아프리카 특유의 함성으로 화답하며 참여머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송용천 세계회장은 “신아프리카의 실질적 성장과 투명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희망 넘치는 신아프리카의 미래세대

이후 진행된 YSP 청년집회에서는 특히 미카 아멜니안 카마라 신아프리카 부대륙회장(UPA 2기 청년 특사)의 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보고를 통해 “신아프리카는 인구 연령 중 20세 이하가 62%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대륙이다. 또한 가정연합 재적인구 중 40세 이하가 현재 2세 5,982명, 1세 7,048명으로 총 13,030명에 이른다. 아프리카 대륙 청년 인구 중 가정연합 재적 인구가 70%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참여머님의 말씀을 받들어 추진중인 ‘효정량 아프리카’ 미래지도자양성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본 프로젝트는 “첫째, 아프리카 청년들이 참여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된 천일국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둘째, 교회와 섭리기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미래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셋째, 현장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 인력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프리카의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었다.

이날 저녁 송용천 세계회장과 세계순회 팀 그리고 신아프리카 대륙 지도자 및 식구들은 천심원 기도를 통해 참여머님의 말씀이 신아프리카 전역에 하루속히 실체화되기를, 자신들을 통해 신아프리카 대륙에 비전 2025 승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국가 복귀 1호: 상투메 프린시페

참여머님께서 “금번 대륙순회 때에 국가 복귀 1호 국가로 축복받은 상투메 프린시페를 꼭 방문하도록 하라!”고 주신 명에 따라 송용천 세계회장과 순회팀은 3박 4일간의 상투메 프린시페 일정을 계획했다. DR 콩고 일정에 이어 상투메 프린시페에 도착한 순회팀은 다음날 하늘의 역사를 통해 만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파트리스 트로보아다 상투메 프린시페 총리와의 면담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상투메 프린시페 총리는 2008년부터 여러차례 총리를 역임한 우수한 인재로 실질적으로 상투메 프린시페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이다.

다음날 오전, 송용천 세계회장은 상투메 프린시페 국회에서 셀미라 세크라멘토 국회의장을 만날 수 있었으며, 오후에는 카롤로스 마누엘 빌라 노바 대통령을 만나는 쾌거를 이루었다. 셀미라 국회의장은 상투메 프린시페를 생각하시고 세계순회 사절단을 보내주신 참여머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마더 문 자서전을 작년 UPF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자서전 첫 페이지에 가장 먼저 언급된 상투메 프린시페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상투메 프린시페에 대한 마더 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상투메 프린시페는 마더 문의 나라다.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을 전했다. 송용천 세계회장은 상투메 프린시페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참여머님의 지침인 청년 인성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송용천 세계회장과 상투메 프린시페 VIP 정상과의 만남은 당시 상투메 프린시페 국영방송을 통해 톱 기사로 보도되었다.



카롤로스 마누엘 빌라 노바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 파트리스 에머리 트로보아다 총리(오른쪽), 셀미라 세크라멘토 국회의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실질적 종단 복귀의 노정: 남아공 하데베 교단 방문

이번 세계회장 아프리카 순회의 또 하나의 목적은 2020년 하늘에게 바친 종단 복귀의 결실이자 열매인 하데베 교단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다. 하데베 선지자는 아프리카에 500만 신도를 거느린 ‘하나님 계시교회 (현 계시영원)’ 창립자이다. 아울러 참어머님께서 임명하신 IAPD 아프리카 의장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원해진 관계에 대한 걱정과는 달리 하데베 선지자는 참어머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였으며, 가정연합 신임 세계회장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실로 하데베 선지자는 참어머님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언젠가 미래에 위대한 동양의 여인이 나타나 세상을 이끌고 세계를 지도할 것이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하데베 선지자는 참어머님을 뵈 이후 그 동양의 여인이 참어머님이심을 확신하였으며, 참부모님 생애노정, 참어머님 말씀을 학습하며, 참어머님의 말씀과 뜻이 곧 세계를 하나 되게 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 증거하였다.

송용천 세계회장이 만난 하데베 선지자는 “참어머님께서 직접 IAPD 아프리카 의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IAPD 활동을 활발히 펼치기 위해 이미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등 5개 국가를 중심으로 IAPD 지부 출범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데베 선지자는 개인 소유 건물에 IAPD 본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번 순회 기간을 통해 정식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첫줄 오른쪽) 임보니 우즈위 레즈베 하데베(계시영원 선지자)

신아프리카 대륙 순회 종합 정리

참어머님 명에 따라 출발한 세계 순회 중 마지막 순회지인 신아프리카 대륙 순회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코로나 이후 침체된 신아프리카 대륙이 새 출발 할 수 있는 순회였다. 송용천 세계회장을 비롯한 세계 순회 팀은 대륙본부가 있는 DR콩고를 시작으로 남아공, 잠비아, 세네갈, 상투메 프린시페까지 각각 중앙-남-서-북-동의 경로로 순회하며 신아프리카 대륙을 전반적으로 순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참어머님 말씀이 신아프리카 전역에 뿌리내릴 기회가 되었다. **둘째, 잃어버린 관계 회복을 위한 순회였다.** 하데베 선지자, 은당가 대주교, 만수르 수장 등 참어머님께서 신아프리카를 통해 길러주신 아프리카 종단 지도자들이 참어머님을 향한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며, 국가 복귀 1호 국가인 상투메 프린시페와의 관계 역시 국가 수장을 비롯한 정부의 정상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순회의 결실은 참어머님께서 세우신 신아프리카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새롭게 영적 기반을 구축하는 순회였다.** 어머님께서 아프리카 분원장으로 특별히 임명해 주신 황성민, 사쿠와 분원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침체된 신아프리카 대륙의 영성을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실체성령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넷째, 신아프리카 지도자와 식구들이 실질적 교회성장을 위해 새 출발할 수 있는 순회였다.** 금번 신아프리카 대륙 순회의 핵심적 목표인 실질적 교회성장의 목표를 놓고 신아프리카 대륙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와 식구들을 독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신아프리카 순회는 참어머님과 세계본부가 하나 된 가운데 신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자와 식구들이 하나 되어 진행되었으며, 신통일한국·신통일세계를 향한 비전 2025 승리를 결의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

지난 (양) 5월 참어머님의 명을 받아 천력 4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양 6.14~8.19) 세계 순회에 임한 송용천 세계회장님과 세계 순회팀은 신유럽, 신중남미, 신아시아 태평양에 이어 신아프리카 세계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첫줄 왼쪽) 셰이크 만수르(이슬람 종단 지도자)

신유럽중동 청년 21일 효정 특별 수련

신유럽중동 청년 21일 효정 특별 수련이 천일국 11년 천력 7월 6일부터 19일까지(양 8.21~9.3) HJ천주 천보수련원에서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수련은 독생녀 참어머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 신유럽중동 30개국에서 120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수련에 참석한 청년들은 참부모님 생애노정, 찬양역사, 성지순례, 천보특강, 천보찬양, 천심원 기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깊은 심정을 체휼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 기간 참어머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천정궁으로 부르시어 꿈에도 잊지 못할 말씀과 축복의 시간을 내려주셨다.



보고 및 간증

마이클 발콤(신유럽중동 대륙회장)

신유럽중동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신앙 성숙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어머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랑과 정성 속에 신유럽중동 청년들은 보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늘부모님의 뜻과 참부모님의 사명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 신유럽중동 청년들은 후속 조치를 위해 참어머님 말씀을 기반으로 참부모님 생애노정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임파워'라는 6개월 선교프로그램인 신 STF를 통해 전도와 만물복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욱 완벽히 준비된 모습으로 참어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팀 벨게, 오스트리아, 19살

저는 이번 21일 수련에 참여하기 전 여러 차례 천심원 철야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련기간 매일 천심원 기도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기성 원장님의 특강을 통해 천심원 기도에 대한 크나큰 힘의 더 많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향에 돌아가 형제자매는 물론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일깨워 주신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키 모라타, 이스라엘, 22살

21일 수련에 참석하기 전, 제 삶은 청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21일 수련을 통해 이곳이야말로 참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만들고 계신 지상천국임을 느꼈습니다. 연아님을 통해 참어머님의 깊은 심정을 느끼며, 다시금 제 신앙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받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관심과 사랑으로 품어주신 참어머님! 많은 시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을 심어주신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뤼이보브 자물라, 우크라이나, 22살

청파동 구본부교회 순례를 통해 참아버님, 참어머님의 깊은 심정을 체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초창기 식구들의 심정을 떠올리며, 저 역시 신령과 진리로 하나되어 전진하겠다는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참어머님 유럽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젊은 저희들의 파워로 유럽을 돌보고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안드레아스 포, 독일, 25살

저는 유럽에서, 하와이에서, STF 를 하면서 참어머님을 뵈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에 참석하기 전 저는 솔직히 너무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을 통해 참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늘의 진실과 독생녀 참어머님의 위상과 가치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참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러한 수련을 준비해주시고 천정궁까지 불러 주셔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어머님! 어머님을 모시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주평화연합 창립 18주년 기념식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창립된 천주평화연합(UPF) 창립 18주년 기념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7월 28일(양 9.12) 청파동 본부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UPF는 2005년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창설됐다. 이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지위로 활동해 오다 2018년 7월 24일에는 UN에 등록된 5,000여 개의 민간 비영리단체(NGO) 가운데 150여 개 단체만이 부여 받은 최상위 등급인 포괄적 협의지위로 승격되어 국제평화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UPF는 창설자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의 적극적인 지도력으로 세계적인 조직으로 확장됐다. 이 모든 기반의 마지막 타깃은 지구상에 최후로 남아있는 분단된 조국,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창설자의 마지막 방첩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UPF 세계본부를 뉴욕에서 한국으로 옮겨와 앞으로 한국에서 세계 UPF를 총괄 지휘해 나갈 예정이다.”며, “기존 단체들과 더불어 UPF가 국민 대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초국가, 초종교, 초문화적인 활동에 중심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 이취임식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나아가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국민연합 회장 이취임식을 국민연합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일국 11년 천력 7월 28일(양 9.12) 청파동 본부 9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공로패 증정, 꽃다발 증정, 송광석 회장 이임사, 효정통일합창단의 축하, 황선조 의장의 취임사, 문연아 선학학원 이사장의 격려사, 조명철 평안남도지사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양창식 UPF 세계의장의 축하, 박판도 경남회장의 억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송광석 회장은 이임사에서 “재임 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천명에 따라 통일준비국민위원 교육, 한반도 통일공감대 조성 등 남북통일운동에 매진해 왔으며, 그 공로로 국민연합이 2016년 대통령표창까지 받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요, 미래의 희망으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반드시 우리 당대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선조 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연합은 40년 동안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독보적인 통일 NGO단체로 그 책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신냉전 시대이며, 남북관





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지만, 남과 북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서로 만나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창설자의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명철 이북5도 평안남도지사는 축사에서 “국민연합은 톱3에 들어가는 역동적인 통일운동 단체이며, 창설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실천을 수반한 균형 있는 통일관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며 “송광석 회장에 이어 황선조 의장도 창설자의 위대한 민족통일의 구상을 구현에 낼 것이라 믿으며 평안남도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국민연합은 1987년 5월 15일 창립한 이래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범국민 통일교육과 해외동포 및 세계시민들의 국제적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적 통일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50개국 재외동포와 100여 개 주요 통일운동 단체가 참여한 ‘2014 통일기원 한민족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했고, 2015년에는 통일부, 행정자치부 및 14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120개국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피스로드 종주 완료식을 광화문광장에서 전 국민과 함께 진행하는 등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민간 통일운동 단체부문 통일부장관상에 이어 2015년 국무총리상, 2016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피스로드 2023: 종교의 자유 포럼

세계 도처에서 종교탄압과 인권침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인권과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모색하기 위한 ‘종교의 자유 포럼’이 ‘아르헨티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라는 주제로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6일(양 8.31) 개최됐다.

아르헨티나 천주평화연합(UPF)과 신종교학자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은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취지아래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 위치한 라리오하주 라리오하 국립대학교(UNLAR) 마이크로시네홀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방향 생중계로 열렸다.

이번 포럼을 위해 세계신종교연구센터(CESNUR: Center for Studies on New Religions)의 설립자 겸 소장인 마시모 인트로빈 박사가 함께 했다.



포럼은 영상 시청(UPF 소개 및 활동, ‘피스로드 2023 라리오하’), 종교 간의 대화(UNLAR 대학 총장 록사나 카이랄라 박사 UNLAR 교육부 학장), 축사(미겔 우에르네르 UPF 아르헨티나 회장), 연설 (오스카르 가브리엘 디아스 목사 전 정교회 총대주교청 신부·다비드 켈료 신부·다비드 자비프도 아그논 유대교 도서관장), 특별보고(다비드 프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지도자), 특별연설(마시모 인트로빈 CESNUR 설립자 겸 소장), 특별 영상 메시지, 질의응답, 평화기도, 문화공연,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미겔 우에르네르 아르헨티나 UPF 회장은 영상을 통해 금번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준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UPF의 주요 활동과 피스로드가 제안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모든 부문에 집단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오스카르 가브리엘 디아스 목사 신부는 특별연설을 통해 “자유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위해 종교의 자유는 필수적입니다.”라고 전했으며, 마시모 인트로빈 박사는 ““공산주의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며,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가 위협받을 때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정 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포럼에는 단테 구스타보 브라이다 라리오하 교구장 주교 외 6명, 페드로 토레스 라파엘라 교구장 주교 외 7명, 페데리코 팔라시오스 신부(에큐메니즘 대교구 및 코르도바 종교 간 대화 위원회 대표), 요시프 보스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이자 남미 메트로폴리탄 대주교, 마라 팔라베시노, 코르도바 종교간 위원회 대표 외 7명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르헨티나 UPF는 수세기를 걸쳐 갈등과 반목이 되어 왔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종교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종교평화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마시모 인트로빈(CESNUR 설립자 겸 소장)
마리아 아레세스(앵커)
홀리오 바산(아나운서)

당신이 이끄는 곳으로 따르리라

안로스 아담스 | 독일, 1975년 선교사

저의 어린 시절은 굉장한 혼돈과 전쟁이 공존하는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시기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며, 타국에 손해를 끼치는 조상들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커다란 문화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강한 종교적 신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73년, 우연한 계기로 가정연합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 개척 프로젝트: 서아프리카 토고’를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했습니다.

토고로 떠나기 전 무엇보다 선교지에 대한 정보 입수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허약 체질인 제가 고향과 가족, 친구를 떠나 타국에서 봉사한다는 사실은 많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하신 참부모님의 본질적 사명과 가치야말로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게 주어진 미션은 ‘너희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출국에 앞서 저는 2천년 전 예수님 시대 때의 사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재림주, 독생녀 참부모님의 사명을 위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지를 방문하여 매일매일 토고를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올렸습니다. 참부모님의 참사랑이 토고에도 전파되어 확산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 역시 구원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대변하는 선교사로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어진 책임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기대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장시간 비행을 한 이후 토고 로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항 입구를 나오자마자 습한 공기와 더운 열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확인서를 독일 협회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고, 비로소 제 눈에 토고의 참혹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독재의 결과로 부적절한 인프라와 그에 따른 불공평과 불평등은 암담한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토고는 광활한 초원, 아름다운 바다와는 대조되는 오염과 질병, 열악한 생활환경, 매우 기초적인 공공 기반 시설로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들, 제복을 입은 공산국가 사람들이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무엇보다도 저를 토고로 보내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토고의 생활과 문화에 미처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1명씩 토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에 이어 영어와 일본어로 소통해야 했던 저는 언어적 차이는 물론, 문화적, 환경적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희 셋은 하늘부모님의 뜻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서로 간의 차이를 매우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예배와 금식 그리고 철야기도를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세 명의 장기 체류가 불투명해졌고, 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새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부당해 가나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인 선교사 역시 가나로 추방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 토고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위험천만함 속에 모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젊은 외국인 여성에게는 하늘의 보호하심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참뜻



을 토고에 전파하기 위해 원리강론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타이핑하는 법을 익히고 제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집 주인이었던 기독교 노부부에게 초보자가 번역한 흔적이 가득한 프랑스어로 된 원리강론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을 통해 그분들의 사위를 만나 처음 원리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저는 프랑스어 원리강의 가이드 안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프랑스어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문화센터에서 저에게 방문 사업가들을 위한 통역을 맡기기도 하였고 훗날 전문적인 자격까지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사회 경력도 없는 제게 시간제 일자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늘은 진실로 저를 틈틈이 훈련시키고, 보살피며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 역시도 장기 체류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냥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새, 저는 면접장에 앉아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분명 당시 제가 했던 말들은 제 생각과 의지에 의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통해 토고에 참사랑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시는 하늘의 음성, 참부모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하늘과 통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가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통일원리를 알리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의해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은 초창기 토고에서 함께 선교했던 미국 선교사와 일본 선교사가 다시 토고에서 함께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 셋은 원리를 무조건 수용하는 젊은 친구들과도 인연 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함께 토론하고 노래하며, 주말 워크숍을 통해 참부모님의 통일원리와 생애 노정을 통한 지침도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토고에 정착한 지 정확히 3년 되던 때, 토고 독립기념관 근처에 첫 번째 성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워크숍 이후



네 명의 학생들이 참부모님의 사상에 함께 할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2주 후, 토고 정부는 ‘새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정책’을 발표했고, 저희에게는 그 일은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임시로 머물 곳을 새롭게 찾아야만 했습니다.

토고 로메와 수도 아비장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를 거쳐 세네갈에 새 동지를 마련한 저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접하는 데 있어 더 많은 헌신과 영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만남, VIP 방문, 기독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통일원리를 전파하며, 저 역시 성경은 물론 코란까지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문득문득 제 첫 선교지인 토고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토고에서의 선교는 제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지만 그만큼 제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의 요람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다시 토고를 찾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12월 마지막 주말,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토고 선교사 해임 통보가 제게 전해진 것입니다. 저의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와 다른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토고 선교사였는데, 하늘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제가 무엇을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저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방향하던 시기 저에게 다른 선교사 한 분이 나이지리아 라고스 센터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목적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금활동을 성공리에 마치고, 1981년 2월 라고스에 도착한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잘 돌아왔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

희망을 주는 따스함의 주인공은 분명 자식을 타국으로 보내고 이제나저제나 안위만을 걱정하시는, 정성으로 일관하시는 참부모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얼마 지나 저는 선교사들의 일부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오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후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핵심 멤버 몇 명은 뉴질랜드에서 온 유능한 지도자와 함께 센터 생활을 하며 엄청나게 모험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1년 11월 나이지리아 정식 선교사로 부임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아프리카 전체를 대신하여 필수적인 사명을 지닌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제 꿈속에 참아버님께서서는 나타나시어 세계평화아카데미(PWPA)의 발전을 위해 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게 나이지리아 PWPA 지부를 강하게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당시 나이지리아는 50여 개의 대학과 교육기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꿈속에서 본 참부모님이셨지만 그 또한 제게 주신 미션이라 여기고 성공전략을 강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시작된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사 투고나 집회, 행사에 나이지리아 종교지도자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1985년, 나이지리아 교수 대표단을 이끌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고위급 지식인들은 참부모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사명 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91년, 제 남편과 두 명의 아들들이 나이지리아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원리강의, VIP만남, 지역사회 봉사를 넘어 경제적 자립 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들어온 유화를 국내외 회사 및 부유층에게 팔아 선교 자금을 마련했으며, 저희 남편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축복결혼 및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1993년 12월 참어머님께서서는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를 방문하셨고, 1995년 11월에는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나를 비롯한 남쪽 여러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서아프리카 땅에 참부모님이 오신 일은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선교사들은 참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조찬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서는 당시 제 남편에게 나이지리아 축구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으며, 그 미션에 따라 나이지리아 일화 축구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나이지리아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명을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 압박에 매우 심각성을 느낀 저희 부부는 라고스에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컨소시엄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식당 체인들을 만들며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줄여갔습니다.

1999년, 저희 부부는 나이지리아 선교 미션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곧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집이라 생각해 왔던 곳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또 새로운 미션을 위해 짧게 인사를 전한 후 새로운 동지로 이동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늘이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참부모님의 말씀은 진실로 저의 아프리카 선교 생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처음 제가 느낀 무서움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제2의 고향이요, 제2의 조국으로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의 42년간의 선교 인생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함께하심을, 축복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